

OBS 희망조합

279일 투쟁기

한국GM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GM이 철수하면 국내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니 정부가 잘 협상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공적 자금을 지원해 줬 봤자 몇 년 뒤면 어차피 철수할 것이니 아예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읽던 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군산공장 노동자를 볼모로 한 글로벌 강대 GM의 벼랑 끝 전술’, ‘참, 자본은 일관되구나’ 감탄했습니다. “자본은 여러 얼굴을 하고 있는 듯해도 그 본질은 똑같구나”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자본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 전술’이란 표현은 저에게 조건 반사적으로 우리의 투쟁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OBS 사측은 2017년 1월 벽두부터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리하고 20명, 외주화 33명의 총 53명 규모로 전체 직원이 200여 명인 OBS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2월, 회사는 19명에게 자택대기발령을 내리는 것으로 정리해고의 포문을 열었고 3월에는 18명의 정리해고 명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투쟁 천막을 치고 ‘정리해고 분쇄 투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천막이 279일간 유지될 줄은.

회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측은 구조조정이 안 되면 자본잠식으로 폐업할 수밖에 없다면서 구성원들을 벼랑으로 몰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준비한 투쟁문화제도 방송사 정문을 걸어 잠그며 원천 봉쇄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성원으로 투쟁문화제는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사측은 새벽을 틈타 투쟁 천막을 커터 칼과 낫을 이용해 강제 철거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바로 당일 저녁 새 천막을 세웠습니다). 해고 예고일 하루 앞둔 4월 14일, 비상대책위가 선도파업까지 벌이며 사측



노동절 인천 집회 OBS 희망조합 지부장



언론노조 문화제 OBS 방송정상화 투쟁 모습





투쟁 천막 1일차



투쟁 천막 279일차

의 폭거를 마지막으로 멈춰 세우려 했으나, 결국 4월 15부로 사측은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13명의 동료가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 회사는 “올해의 광고수입이 180억으로 예상되니 모든 경영은 이 180억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로 정리해고를 정당화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측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사측의 180억 경영예측은 말 그대로 예측일 뿐이다. 전사적으로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연말에 다시 논의하자”, “사람은 비용이 아니다. 방송은 직원들의 자유로운 창의력으로 만든다. 정리해고는 조직을 위축시키고 인재 유출만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호소하고 설득했으나 회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사실 회사의 정리해고 압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매년 임금협상의 과정에서 또는 협상에 들어가기 전, 사측은 선제적으로 정리해고 카드를 꺼내들며 구성원들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 결과 협상은 매년 노동자의 임금 양보



정문 밖에서 열린 투쟁 문화제



결의 대회 천막 투쟁

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사는 정리해고를 무기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임금인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3차례 임금반납을 받아냈습니다. 노동자 생존권이라는 무기는 회사 밖에서도 유용했습니다. 사측은 누적 적자를 핑계 대며 해고를 무기로 방통위를 압박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고,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선 노동자를 볼모로 방통위에 ‘벼랑 끝 전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2017년의 정리해고 압박도 결국 임금삭감이 목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회사의 임금강탈 고리를 이번에는 끊겠다는 각오였고, 몇 년간 계속된 비용 절감으로 자체제작 포기 수준의 방송을 하는 OBS가 이번 기회에 바뀌지 않으면 앞론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임금 양보 대신 노동자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을 내놓았습니다. 퇴직금을 제작비로 투자해서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3개뿐인 현실, 지역뉴스 없는 지역 방송, 3방/4방은 기본인 편성표를 고발하며 “방송사가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방송으로서 존재 이유가 무엇이나”고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시작은 ‘정리해고 분쇄 투쟁’이었으나, 곧 우리의 투쟁은 ‘OBS 방송정상화 투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바야흐로 언론개혁은 시대정신이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겪으며 일어난 민주 시민들의 거대한 촛불 물결은 나라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권력에 부역한 언론도 공범이라며 언론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OBS 방송정상화 투쟁’은 이런 언론개혁이라는 시대정신에 적극 부응하며 우리 내부의 문제점들을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5월, 노동조합은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OBS 대주



추혜선 의원 간담회



OBS 방송정상화 토론회

주의 방송사유화 음모를 고발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OBS에는 10명의 사장이 있었을 만큼 경영이 불안정했고, 이런 경영 불안 뒤에서 실제로 OBS를 좌지우지한 이는 OBS의 대주주였습니다. 대주주는 OBS의 팀국장 인선은 물론이고 프로그램 신설, 폐지의 방송 편성예까지 관여했고 보도, 제작의 독립성 침해도 서슴지 않았습니(심지어 사무 공간 배치, 흡연 장소 지정 등의 시시콜콜한 일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우리는 이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인 방송사 대주주가 공공의 자산인 방송을 사유화하

려는 시도를 고발하며 경인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사회 공공재인 OBS를 지켜내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망가지는 OBS를 지켜내고 시청자가 OBS를 봐야 할 이유와 OBS만의 가치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우리 OBS 언론노동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여름, 우리들은 OBS 방송의 진정한 주인을 만나러 나섰습니다. OBS는 시청자가 만든 방송입니다. OBS는 2004년 iTV가 허가 취소된 이후 경기도 인천의 15,000여 명의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한 창사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만든 경인지역의 새 방송입니다. 그러므로 OBS의 진정한 주인은 지역의 시청자입니다. 6월, 우리들은 OBS의 방송권역인 경기도, 인천의 41개 시군구를 자전거로 순례하며 시청자를 만나기 위해 'OBS를 지역의 품으로, 희망자전거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9박 10일간 1,000km를 달렸습니다. OBS 방송정상화의 염원으로, 지역을 돌며 지역의 시청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희망자전거는 우리가 지역방송임을 다시 한 번 깊게 되새기게 만들었고 더불어 우리 투쟁 대오를 더욱 단단하게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광화문 촛불 집회 OBS 희망조합 특보 배포



희망자전거 OBS 방송기술인협회 지지 방문



해고자 복직 첫 출근 현장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의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였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사측과 임금 체불 건, 부당징계 건으로 지대한 법적 투쟁을 벌였고, 내부적으로는 해고 복직자의 업무 복귀 투쟁, OBS 적폐 청산 투쟁을 치열하게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1월 11일, 자택 대기하던 14명의 동료들이 전원 회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해가 바뀌어 2018년, 사장 공모를 통해 선임된 박성희 사장과 노동조합은 임금은 동결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방송의 독립성,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것에 합의하는 2017년 임단협을 마침내 타결했습니다. 2월에는, 내부 개혁기

구인 미래개혁특별위원회가 3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선정된 OBS 5대 개혁 과제(▲채널 정체성 확립 ▲매체력 제고 ▲제작 자율성 확보 ▲노후 인프라 개선 ▲조직문화 개선)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은 'OBS 방송정상화'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OBS가 진정한 경기도 인천의 지역방송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날까지 쉼 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방송을 하고 싶다"는 작은 열망이 모여 'OBS 방송정상화 투쟁'이라는 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 싸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후배가 물었습니다. "방송기술인도 언론인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방송사 종사자라서 언론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소위 '기레기'들도 언론인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레기는 그저 회사원인데 그 회사가 공공롭게도 언론사일 뿐입니다. 저에게 언론인이란, 언론에 종사하며 바른 언론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2017년 한 해 동안 투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KBS, MBC 동지들도 2017년 한해, 방송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 중에는 방송기술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방송기술인으로서 방송의 기술적 완성을 위해 싸운 걸까요? 아닙니다. 방송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운 것입니다. 그분들의 싸움으로 우리 언론은 한 뼘 더 진보했습니다. 그분들의 싸움으로 우리 언론은 그만큼 더 국민에 봉사하는 언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언론인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불의에 맞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부조리한 시스템에 맞서 고발하고, 취재하고 방송하는 사람이 언론인입니다. 방송의 현장에서 시청자를 위해 싸울 때, 방송기술인은 언론인입니다. 📺

노사상생선언 유진영 지부장과 박성희 사장

